

부정적 양육 태도, 내현적 자기애, 관계중독 성향,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구조적 관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정오영¹ · 장석진²

¹상명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²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 내현적 자기애, 관계중독 성향,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데이트폭력 발생과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들의 경로를 규명하였다.

방법 전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대학생 479명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SPSS 25.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 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 분석, 경로분해를 통한 매개효과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부정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부정적 양육 태도와 데이트폭력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 성향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개인 내적 변인인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중독 성향 간의 변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그 의미가 있다.

주제어 부정적 양육 태도, 데이트폭력, 내현적 자기애 성향, 관계중독 성향, 대학생

논문접수: 2022년 4월 27일, 논문심사: 2022년 6월 29일, 게재승인: 2022년 7월 18일

Corresponding to 장석진, schang@smu.ac.kr

본 연구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서론

대학생은 발달 단계상 청소년 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이 시기에 신체적으로 완전한 성인이 된다.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의 범위가 넓혀지는 시기로서 Sullivan(1953)은 20대 초반부터 시작되는 성인기 동안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며 그 상대방과 더욱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대학생 시기에 사회적 참여를 두려워하거나 대인관계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 몰입과 고립감이라는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대학생

시기에 발달과업인 친밀감을 획득하기 위해 인간관계 중 연인관계를 연구하고 있다(유외숙, 2006).

데이트 관계에서 다툼이나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되며, 이러한 갈등을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선미경, 2021). 실제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례는 전체 연인 중 70-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오정, 장용언, 2019).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실제 발생률은 조사된 것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이화숙, 2016). 데이트폭력은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적응을 심각하게

저해한다(Erdem & Sahin, 2017). 생애 발달과정에 있어 본격적인 이성 교제가 대학생 시기에 시작되며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도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이 대학 시절이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폭력 경험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데이트 관계 질과 내적 변인에 주목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장 과정에서 부모폭력의 목격 또는 아동 학대의 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동기, 2009). 또한, 데이트폭력의 원인으로서는 내적 변인을 중요변수로 하여 진행된 연구에서는 폭력 상황에 대한 낮은 인식과 왜곡된 신념(강희순, 2009; 이지연, 이은설, 2005), 내현적 자기에 성향(남귀숙, 이수진, 2020), 관계중독 성향(이윤연, 장현아, 2017) 등에 의해 데이트폭력이 발생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개인주의 사회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극단적인 과대평가, 특권의식, 자기중심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자기에 성향의 특징을 보여준다(김미선, 2020). 지나친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 대해 거대한 환상을 가지며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상대방으로부터 특별한 대접과 인정만을 원하므로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인 모습을 나타낸다(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4). 데이트폭력의 원인이 되는 개인적 특성으로 이러한 자기에 성향에 주목할 수 있는데, 외현적 자기에의 성향은 ‘거대성-과시성’ 특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고, 내현적 자기에의 성향은 ‘취약성-민감성’ 특성으로 나타난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김혜원, 이지연, 2017).

Erdem과 Sahin(2017)에 의하면, 대학생의 자기에 성격특성은 데이트폭력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남귀숙, 이수진, 2020). 그러나 데이트폭력 행동

과 관련해서 개인의 성격적인 요인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예측 변인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데이트폭력을 유발하는 가장 직접적 요인으로 최근 자주 다루어지는 변인이 관계중독 성향이다. 관계중독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한진주, 2007). 생애 초기관계에서 학대나 방치를 경험하여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성인이 된 이후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며(임종렬, 김순천, 1996), 두려움과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방과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지낸다(Bruce & Nelie, 2000, 전동섭, 정성준 역, 2002). 이러한 관계유형은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호소하며 관계에 있어서 의존적이고 병리적인 관계를 지속하려는 관계중독 성향과 맥을 같이한다(우상우, 2014). 특히, 연인과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집착을 보이고, 쉽게 분노하며 연인의 행동을 조절하려는 의도로 폭력을 사용하여 데이트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주지현, 서경현, 2015).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관계중독 성향은 가해 경험을 한 사람의 집착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양승애, 서경현, 2015).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최근 데이트폭력을 야기하는 또 다른 심리적 변인으로 관계중독 성향에 초점을 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박경은, 유영권, 2017). 따라서 관계에 중독될수록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살펴본 내현적 자기에와 관계중독 성향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관계나 양육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변은실, 이주영, 2016; 이나영, 하수홍, 장문선, 2017)에 의하면,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로 인한 아동 학대, 방치 등의 경험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 형성된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중독 성향은 성장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Rohner, 198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 시기의 데이트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기제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형성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의 영향력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 양육 태도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만 어떠한 개인의 내적 경로나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트폭력의 가해 행동을 촉발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있어 관계중독 성향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고,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입증되었음에도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중독 성향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하는 심각한 행위로 이에 대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을 다양하게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중독 성향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데이트폭력 발생과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변인들의 경로를 규명하여,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건강한 데이트 관계를 위한 교육과 상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등 실천적인 개입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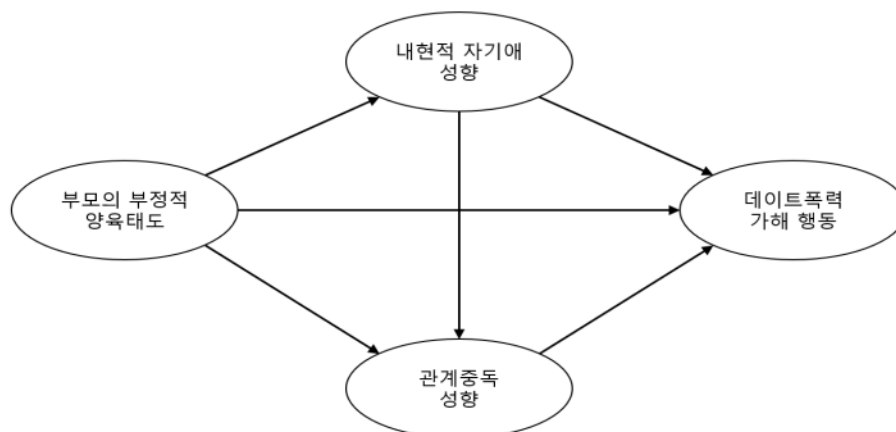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가?
-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 성향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가?
- 넷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중독 성향은 이중 매개역할을 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근거로 해



[그림 1] 연구모형

서, 연애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중독 성향이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관계중독 성향을 거쳐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확인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인과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2. 검사 도구

가.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 척도는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와 모, 각각의 양육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부모’에 대한 문항으로 수정한 후,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를 측정하였다. Likert 4점 척도(1=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과잉 기대(6문항), 과잉 간섭(7문항), 비밀관성 (4문항), 학대(6문항), 방치(5문항)의 5가지로 총 28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부정적 양육 태도 .93, 비밀관성 .74, 과잉 기대 .86, 과잉 간섭 .86, 학대 .87, 방치.79로 나타났다.

나. 내현적 자기애 성향

내현적 자기애 성향 측정 도구는 Ahkta와 Thomson (1982)의 자기애 성향 성격장애의 임상적인 특성에 기초로 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하고, 한유정 (2017)이 수정하고 보완한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목표불안정 9문항, 과민/취약성 10문항, 그리고 소심/자신감부족 8문항 3가지로 총 27문항이다. 본 척도는 Likert 4점 척도(1=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전체 .95, 목표불안정 .93, 과민/취약성 .89, 소심/자신감 부족 .85로 나타났다.

다. 관계중독 성향

관계중독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Peabody(2011)가 제시한 40문항의 Relationship Adiction Questionnaire를 이상우(2014)가 국내 실정에 맞춰 수정한 한국판 관계중독 성향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30문항으로, 중독적인 연인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이나 느낌, 행동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 없으며, 본 척도는 Likert 4점 척도(1=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중독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는 .93로 보고되었다.

라.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측정 도구는 Straus 등(1996)이 개발한 개정판 갈등 책략 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2:CTS-2)를 김정란(1999)이 국내 대학생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가해 행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Likert 4점 척도(1=없음; 4=매우 자주)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 책략 척도의 심리적 폭력 가해 11문항, 신체적 폭력 가해 7문항,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1, 심리적 폭력 가해 .80, 신체적 폭력 가해 .70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조사 기간은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였으며, 데이트폭력에 대해 전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총 479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여 진행하였다. 설문 대상은 대학생 중 20대로 한정하였으며, 연애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참여자를 필터링하였다. 수집된 479부의 설문 중 479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에서는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백분비(%)
성별	남	250	52.2%
	여	229	47.8%
학년	1학년	121	25.3%
	2학년	118	24.6%
	3학년	123	25.7%
	4학년	117	24.4%
종교	개신교	91	19.0%
	천주교	37	7.7%
	불교	36	7.5%
	무교	305	63.7%
	기타	10	2.1%
현재 연애 여부	현재 사귀고 있다.	178	37.2%
	과거에 사귀 경험 있다.	301	62.8%
연애 기간	6개월 미만	116	24.2%
	6개월 이상~1년 미만	141	29.4%
	1년 이상~2년 미만	132	27.6%
	2년 이상~3년 미만	48	10.0%
	3년 이상~4년 미만	28	5.8%
	4년 이상~5년 미만	12	2.5%
	5년 이상	2	.4%
합계		479	100.0%

남 250명(52.2%), 여 229명(47.8%)로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1학년 121명(25.3%), 2학년 118명(24.6%), 3학년 123명(25.7%), 4학년 117명(24.4%)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개신교 91명(19.0%), 천주교 37명(7.7%), 불교 36명(7.5%), 무교 305명(63.7%), 기타 10명(2.1%)로 나타났다. 현재 연애 여부에서는 현재 사귀고 있다. 178명(37.2%), 과거에 사귀 경험 있다. 301명(62.8%)로 나타났다. 연애 기간에서는 6개월 미만 116명(24.2%), 6개월 이상~1년 미만 141명(29.4%), 1년 이상~2년 미만 132명(27.6%), 2년 이상~3년 미만 48명(10.0%), 3년 이상~4년 미만 28명(5.8%), 4년 이상~5년 미만 12명(2.5%), 5년 이상 2명(0.4%)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적 자료처리는 SPSS 25.0 for Windows와 AMOS 2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연애 경험이 있는 20대 대학생

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했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 내현적 자기애 성향, 관계중독 성향,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연구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올바르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뒤, 매개효과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 내현적 자기애 성향, 관계중독 성향,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주요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변인들이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내현적 자기애 성향, 관계중독 성향,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전체 및 하위요인들의 기본적 통계량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토할 때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의 크기로 평가하고, 왜도는 절대값이 3 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7 또는 10 미만일 때 자료가 적절하여 모형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Curran, West & Finch, 1996).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이 기준값 이내로 나타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표 2> 주요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1-1	1-2	1-3	1-4	1-5	2	2-1	2-2	2-3	3	4	4-1	4-2
1. 부정적 양육 태도														
1-1. 비밀관성	.83***													
1-2. 과잉기대	.77***	.48***												
1-3. 과잉간섭	.80***	.58***	.60***											
1-4. 학대	.75***	.58***	.42***	.42***										
1-5. 방치	.78***	.63***	.41***	.47***	.63***									
2. 내현적 자기에 성향	.47***	.38***	.30***	.50***	.24***	.41***								
2-1. 목표불안정	.37***	.29***	.24***	.42***	.16***	.32***	.86***							
2-2. 과민/취약성	.51***	.43***	.33***	.50***	.29***	.47***	.90***	.64***						
2-3. 소심/자신감부족	.35***	.28***	.21***	.39***	.18***	.29***	.88***	.61***	.73***					
3. 관계중독 성향	.37***	.32***	.29***	.29***	.22***	.32***	.42***	.31***	.47***	.34***				
4.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25***	.28***	.15***	.16***	.20***	.20***	.17***	.18***	.19***	.06	.29***			
4-1. 심리적폭력 가해	.22***	.26***	.12**	.13**	.18***	.19***	.15***	.17***	.17***	.05	.28***	.96***		
4-2. 신체적폭력 가해	.21***	.19***	.17***	.18***	.15***	.14**	.13**	.12*	.15**	.07	.19***	.68***	.45***	
평균	1.88	2.09	2.06	2.17	1.47	1.60	2.33	2.36	2.25	2.37	1.84	.18	.28	.05
표준편차	.46	.60	.67	.63	.51	.53	.56	.68	.64	.60	.42	.14	.20	.10
왜도	.61	.31	.45	.58	1.58	.86	-.01	.13	.07	-.06	.47	1.49	.96	2.84
첨도	.16	-.09	-.24	.15	2.80	.79	-.33	-.47	-.59	-.40	-.24	3.13	.97	9.51

*p<.05, **p<.01, ***p<.001.

2. 측정모형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적합도 지수 중 df(자유도)는 59, p 값은 .000, $Q(\chi^2/DF)$ 값은 4.345, GFI(기초적합지수)는 .922, CFI(증분적합지수)는 .93, TLI(증분적합지수)는 .908, RMSEA는 .084, SRMR은 .050으로 나타나 모형적합도는 지수는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

다(Steiger, 2010).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판측변수와 잠재변수 구성성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평균분산추출 값이 .5 이상이고 개념신뢰도 값이 .7 이상이면 집중타당도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는데, 모든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판측 변인의 일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판별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AVE) 제공근이 각 변인의 상관계수보다 높아

<표 3>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모형	χ^2	df	p	χ^2/DF	GFI	CFI	TLI	RMSEA	SRMR
통계값	256.339	59	.000	4.345	.922	.930	.908	.084	.050

<표 4> 판별타당도 및 집중타당도 검증

	부정적 양육 태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	관계중독 성향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
부정적 양육 태도	.87				.758	.939
내현적 자기에 성향	.58***	.91			.823	.932
관계중독 성향	.43***	.51***	.95		.902	.965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35***	.23***	.39***	.99	.975	.987

***p<.001.

야 확보된 것으로 본다(배병렬, 2009). <표 4>에 제시한 AVE 값의 제공근은 모든 상관계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판별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구조모형분석

구조모형분석에 앞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의 모형은 표준화 절대 적합도 지수(SRMR) 값이 .050, RMSEA 값이 .084로 기준값 .1이하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증분적합도 지수 GFI는 .922, CFI는 .930, CFI는 .930, TLI는 .908로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설정된 최종 구조모형은 [그림 2]와 같다. <표 3>과 <표 5>의 모형적합도 수치는 일치하는데 이는 동치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치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잠재변인 개수와 측정 문항이 유지된 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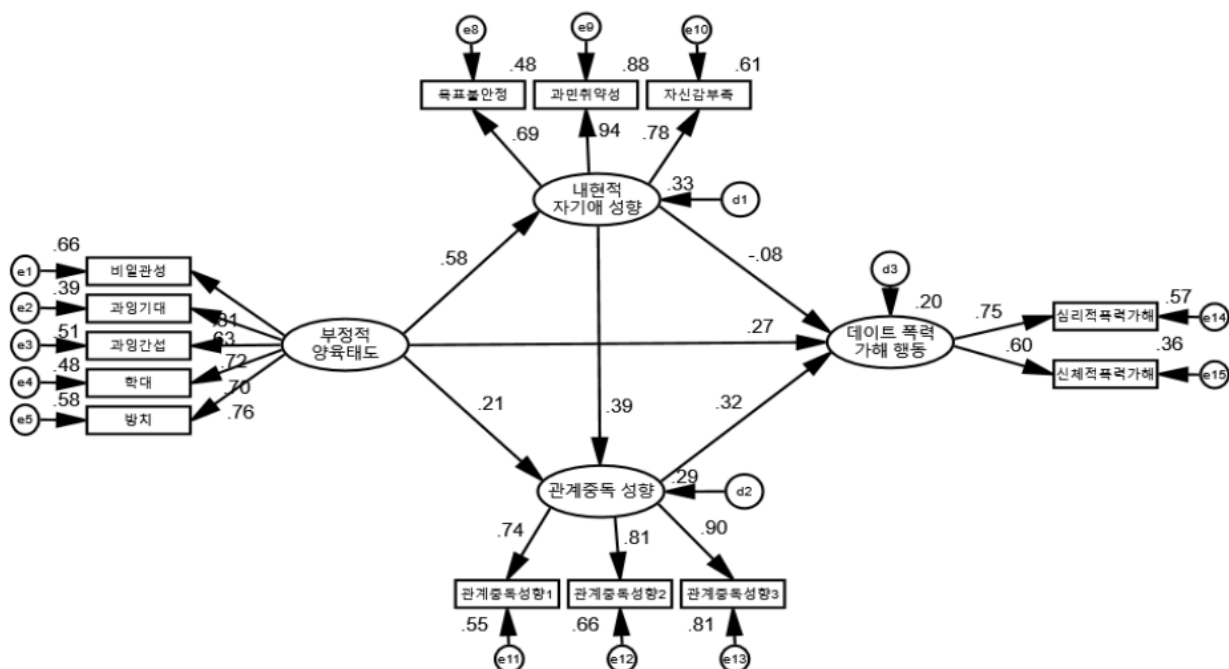
모형으로 진행될 경우, 동일한 공분산 행렬을 가지게 됨으로 동일한 적합도와 자유도를 갖게 된다.

설정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내현적 자기에 성향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58, p < .001$).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관계중독 성향으로 가는 경로에서도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39, p < .001$).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관계중독 성향으로 가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21, p < .001$).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27, p < .001$). 한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beta = -.08, n.s$). 마지막으로 관계중독 성향에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32, p < .001$).

매개효과의 분석을 위해 먼저 효과 크기를 총 효과,

<표 5>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

모형	χ^2	df	p	χ^2/DF	GFI	CFI	TLI	RMSEA	SRMR
통계값	256.339	59	.000	4.345	.922	.930	.908	.084	.050



[그림 2] 구조모형

<표 6> 모형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부정적 양육태도	→	내현적 자기에 성향	.65	.58	.07	9.05***
내현적 자기에 성향	→	관계중독 성향	.31	.39	.05	6.19***
부정적 양육태도	→	관계중독 성향	.19	.21	.06	3.38***
부정적 양육태도	→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10	.27	.03	3.40***
내현적 자기에 성향	→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03	-.08	.03	-1.06
관계중독 성향	→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12	.32	.03	4.35***

p<.01, *p<.001.

<표 7> 잠재변수 간의 직·간접효과 분석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정적 양육 태도	→	내현적 자기에 성향	.58***	-	.58***
부정적 양육 태도	→	관계중독 성향	.21***	.22***	.43***
내현적 자기에 성향	→	관계중독 성향	.39***	-	.39***
부정적 양육 태도	→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27***	.09	.36***
내현적 자기에 성향	→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08	.12***	.04
관계중독 성향	→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32***	-	.32***

***p<.001.

직접 효과, 간접효과를 나누어 분석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랩 검증(Bootstrap method)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경로분해로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그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에서 관계중독 성향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22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랩 검증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즉, 부정적 양육 태도에서 관계중독 성향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정적 양육 태도에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내현적 자기에 성향에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12로 나타났고, 부트스트랩 검증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에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최근 사회문제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발생빈도와 양상의 심각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성인 초

기에 진입하여 친밀한 대인관계가 증가하는 시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예방책 마련 요구가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정적 양육 태도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에와 관계중독 성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변수인 내현적 자기에와 관계중독 성향이 각각 매개한다는 것과 내현적 자기에와 관계중독 성향이 이중 매개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 인식할수록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권오정, 장용언, 2019; 유명재, 김나리, 201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정적 양육 태도는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폭력 행동에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이명신, 이계민, 2013; 주지현, 서경현, 2015)가 반복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보편적인 인과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만,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경로로 하여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 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강지연, 전미경, 2018; 전선영, 조한익, 2017)와 일치한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를 돌봄이 부족한 방치적 태도로 지각하거나 과잉 간섭이나 과잉기대로 지각했을 때 자녀는 부모 가치에 맞게 웅대한 자아상을 발달시키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대학생 내담자를 상담할 때 이들이 경험한 부모의 양육을 확인하고 상담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김시원, 박경, 2012; 원선호, 배성만, 2020; Carton & Egan, 2017)과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Kohut(1977)에 따르면, 어린 시절 양육을 받을 때 부모로부터 악의적인 공격적 양육이 아니라, 충분히 공감받지 못한 것만으로도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환상으로 남아 자기애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애정이 결핍되고 거부적인 양육을 받았다고 지각한 대학생의 경우, 자신감 결여로 인해 거절에 대해 민감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작은 실수에도 수치심을 느껴(차혜련, 김종남, 2016),

취약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하는 특성을 보임으로써(공지혜, 하정희, 2021) 간접적인 데이트폭력을 가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정적상관 관계를 보인 결과는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대하여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서 다른 매개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 대한 검증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 성향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린 시절의 학대나 방치, 비밀관적인 경험 이후 역기능적 관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인지 양식을 통해 부정적 사건의 원인을 상대방이 아닌 자신에게 돌려 자책하고, 병리적인 관계에 매달리는 관계중독 성향을 만든다는 선행연구(Whiteman & Petersen, 1998, 김인화 역, 2004; 한진주,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자녀가 발달적으로 미숙한 시기에 자신과의 관계가 친밀한 타인, 즉,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공감과 사랑 등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외부로부터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관계에 강박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Mahler, Pine & Bergman, 1975, 이재훈 역, 1997).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는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관계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에 의한 역기능적 정서로 관계중독 성향이 심화되면서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넷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와 관계중독 성향이 이중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중독 성향은 이중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부정적으로 양육하게 되면 민감하고 쉽게 상처받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아지고, 이런 성향을 통해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집착하는 관계중독이 경향을 높여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를 경험했다고 지각한 대학생의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였다. 자기애 성향은 개인 내적 성격 요인으로 관계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중독 성향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중독 성향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로,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중독 성향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논의와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부정적 양육 태도와 데이트폭력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트폭력 가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양육단계에서부터 부모의 부정적 양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모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부정적 양육 태도가 관계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작용한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잃고 상대방에게 과한 의존성과 강박적인 몰입을 보이는 관계중독 성향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관계중

독 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적 개입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중독 성향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관계중독 성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폭력성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라는 고유의 성격특성보다는 관계중독 성향을 통해 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관계중독 성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개인의 성격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독 성향까지 고려한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대인 관계상에서 나타내는 부적응적인 대처의 원인과 결과를 인식하고 사고를 찾아 친밀한 관계 내에서 보다 건강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도와 궁극적으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실태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이론적 확장의 발판이 되었다는데 함의가 있다. 즉, 아동기 경험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 관계중독 성향 등과 같은 개인 특성을 매개하여 대학생 시기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 가해 경험자를 대상으로 개인 심리적 특성, 가정적 특

성, 환경적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초기 성인기에 진입하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형성에 있어 역기능인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가치가 있다. 특히, 발달과도기 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데이트폭력은 대학생이 건강한 사회인이자 성인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는데 연구의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상담 현장 및 교육기관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직까지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제재와 처벌의 명확한 법적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데이트폭력은 연인들 간에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당사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신체적 폭력과 같은 심각한 폭력은 이후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여 법 제재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인 손상은 다른 종류의 폭력과 비교해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사회적인 차원의 데이트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으로 데이트폭력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제도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련 제도 및 법 제정은 데이트폭력 신고를 촉진할 것이고 가해 경험을 한 사람에 대해 전문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해 데이트폭력의 가해 행동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 대상을 선

정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만을 선정하여 표본 선정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상과 연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 관계중독 성향,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을 연구 변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성별, 아동 학대 시기, 데이트폭력의 유형별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결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 가정적 특성,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연구를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는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응답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바람직성에 대한 경향을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데이트폭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심층 1대1 면담 등과 같은 질적 연구가 병행된다면,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척도는 자기의 폭력에 대한 가해 행동을 묻는 척도이기에 개인 반응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솔직하게 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기존 선행 연구 결과가 일정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간 극을 메꿀 수 있는 추가적인 변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시기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은 부모로부터의 관계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심리적 기제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 관계중독 성향의 경로를 거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데이트폭력을 이해하고 예방하는데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교육기관 및 실제 상담 현장에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감소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지연, 진미경 (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대인 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구 한국가족복지학회)**, 23(3), 489-509.
- 강희순 (2009). 여대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 모형구축.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지혜, 하정희 (202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경험 회피의 관계: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 민감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2(2), 207-229.
- 권오정, 장용언 (2019). 부모 간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젠더 감수성의 조절효과. **지역과 세계**, 43(1), 235-263.
- 김동기 (2009).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6), 135-159.
- 김미선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 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시원, 박경 (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10), 121-141.
-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 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이지연 (2017).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 사회불안, 페이스북 중독의 구조적 관계분석. **아시아 교육연구**, 18(2), 265-291.
- 남귀숙, 이수진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교**, 17(1), 87-107.
- 박경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 내면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11-742.
-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변은실, 이주영 (2016).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25-1149.
- 선미경 (2021).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과 젠더 감수성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법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배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승애, 서경현 (2015). 부모의 거부적 양육과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 거부 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8), 407-427.
- 우상우 (2014). 관계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이론적 모형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선호, 배성만 (2020).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역할과 인지적 공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 건강**, 25(3), 549-567.
- 유영재, 김나리 (2019). 폭력의 학습 아동 학대 경험과 범죄 행동 간의 관계. **한국범죄심리연구**, 15(4), 69-86.
- 유외숙 (2006). 이성 관계에서 성에 대한 오해와 이해.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6(1), 58-59.
- 이나영, 하수홍, 장문선 (2017).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전위 공격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2), 203-222.
- 이명신, 이계민 (2013).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아 분화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2(2), 225-271.
- 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4).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시 교차적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 일반**, 3(3), 609-628.
- 이윤연, 장현아 (2017).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피해의 관계: 유기 도식과 관계중독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여성**, 22(2), 191-209.
- 이지연, 이은설 (2005).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모형.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19-436.
- 이화숙 (2016). 대학생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종렬, 김순천 (1996). 대상분열에 의한 자기도취적 자기학대.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0, 199-226.
- 전선영, 조한익 (2017). 부모의 조건부 관심과 고등학생의 완벽주의와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2), 1-24.
- 주지현, 서경현 (2015). 부모와의 애착 및 이성과의 관계에서 집착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2(5), 209-229.
- 차혜련, 김종남 (2016).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거부 민감성의 매개효과 및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3(12), 373-401.
- 한유정 (2017).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과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진주 (2007). 어린 시절 경험과 관계중독의 패턴연구: 에니어그램과 대상관계 이론적 접근. **에니어그램연구**, 4(2), 135-161.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 행동 척도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ruce, L., & Nelie, L. (2000). *Christian counseling & family therapy*. 정동섭, 정성준 역 (2002).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서울: 예수전도단.
- Carton, H., & Egan, V. (2017). The ark triad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5, 84-8.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Erdem, A., & Sahin, R. (2017). Undergraduates' Attitudes toward Dating Violence: Its Relationship with Sexism and Narcissism.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 91-105.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이재훈 역 (1997). **유아의 심리적 탄생**.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Peabody, S. (2011). *Addiction to love: Overcoming obsession and dependency in relationships*. New York: Random House, Inc.
- Rohner, R. (1980). Worldwide tests of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theory: An overview. *Behavior Science Research*, 15(1), 1-21.
- Steiger, J. H. (201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Whiteman, T., & Petersen, R. (1998). *Victim of love*. 김인화 역 (2004).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서울: 사랑플러스.

ABSTRACT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Negative Parenting Attitude, Covert Narcissism, Relationship Addiction, and Dating Violence Behavior: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university students

Jung Oh-young¹, Chang Seok-jin²

¹Ph.D., Department of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ative parenting attitude, covert narcissism, relationship addiction tendency, and dating violence behavior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identified the paths of major variable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occurrence and maintenance of dating violence.

Method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26 to March 15, 2021, targeting 479 college students from four-year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and the data were used fo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the use of SPSS 25.0 and Amos 25.0 programs.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was conduct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 analysis, and path decomposition in order to analyze structural relationships.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the higher the effect on the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and it was verified that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nd dating violence were closely related.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expressive narcissism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effect of parent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dating violence, no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expressive narcissism was confirmed. Third, relationship addiction tendency was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effect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the behavior of perpetrators of dating violence.

Conclusions This study integrally analyzed the variable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relationship addiction, which are individual internal variab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f parents and the dating violence perpetrator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Through thi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the basis for preventing dating violence in advance.

Key word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Dating Violence, Covert Narcissism, Relationship Addiction, university students